

증시폭락에도 잘나가는 증권株... 3분기 전망도 '好好'

3분기 영업이익 전망 34% 증가
2분기 IB·PI 수익창출에 호실적
미래에셋대우 등 '최선호주' 꼽아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종의 나홀로 성장세가 눈에 띈다. 지수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IB(기업금융)를 위주로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증권사가 올해 3분기에도 호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업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34.44% 증가한 7845억원이다. 지난달에 비해 기대치가 3.53% 상향됐다.

증권업종은 올해 증권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수익 하락이 예상됐다. 하지만 증권사가 지난 2분기 IB, PI(자기자본투자)를 위주

(2019 2분기 증권업 순이익)

구분	직전추정	잠정치	전년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미래에셋대우	190.9	218.4	40.3	30.7	167.9
한국금융지주	194.1	208.2	19.4	-19.4	188.3
NH투자증권	123.6	107.3	-8.1	-37.3	118.1
키움증권	68.5	55.5	-30.2	-64.8	61.7
삼성증권	102.3	96.2	-3.8	-17.9	104.7

(자료=각사,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호실적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이 3분기 증시 폭락 분위기와 별개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 영업의 기대치도 연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형증권사의 경우 과거 대비 커진 자본력을 바탕으로 IB관련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또 금리인하 장기적으로 증시주변의 유동성을 넓히고 증권사 채권 자산운용에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즉 3분기에도 견조한

실적 시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바야흐로 IB시대'가 도래한 만큼 IB수익이 높은 대형증권사를 위주로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업계 1,2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와 한국금융지주(한국금융투자)가 관심종목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 2분기 미래에셋대우와 한국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든 증권사들이 IB관련 수익만큼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삼성증권의 지

난 2분기 IB부문 수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의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6.2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이라며 최선호주로 꼽았다.

채권평가이익이 3분기 실적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리 하락에 따라 채권가격이 오르면서 그에 따른 이익이 증권사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채권 및 파생결합증권 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됐다고 판단, 3분기 역시 채권평가이익만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B부문 성장은 2~3분기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2분기 우수한 실적을 시현한 증권사에 대한 선호가 3분기 실적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해외주식 투자전략 세미나

KB증권 베트남 부동산·주식 세미나 개최

8/29(목) 오후4시, 서울 역삼 포스코타워



KB증권 29일 베트남 부동산 세미나

KB증권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해외주식 투자전략 세미나 '베트남 부동산·주식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1부에서는 VNK투자자문 고문 대표를 초청해 최근 고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부동산 및 투자전략을 소개한다. VNK투자자문은 베트남 현지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2,3부에서는 KB증권 리서치센터 이창민 연구원과 글로벌BK솔루션팀 전래훈 과장이 베트남 경제와 투자전략, 유망종목 등에 대해 전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KB증권 홈페이지나 글로벌BK솔루션팀을 통해 유선 접수 가능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손영지 기자

5G 통신주 "저가매수 기회" vs "반등 어렵다"

이통사 실적부진에 엇갈린 전망
SKT·KT, 52주만에 최저가 기록

5G 관련주인 이통통신사들의 주가가 실적 부진으로 최근 52주 최저가를 새로 썼다.

주가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가매수'라는 의견과 '마케팅 비용 부담'으로 당분간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은 16일 전 거래일 대비 3.14% 하락한 23만1500원에 장을 마쳐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KT와 역시 전일 대비 1.12% 하락한 2만6500원으로 52주 최저가를 다시 썼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반기에 이동전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상승하면서 5G통신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통신 3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2분기 759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7% 급감했지만 3분기에는 전 분기에 비해 21% 증가한 9195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라며 "이제는 3분기 실적 호전주로 이동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통신 3사 5G 가입자 순증 합계가 월 60만명에 이르러 단말기교체 가입자의 30%로 확대되고 있다"며 "3분기 통신 3사 마케팅비용 합계가 2분기 대

비 2% 증가가 예상되나 ARPU이 전 분기에 비해 1.3%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증가가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통신 3사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G 마케팅 비용을 집중 투입하는 점이 걸림돌이 돼 주가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5G 가입자 증가로 통신서비스업체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금 확대 정책이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익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최근 통신업체의 주가는 마케팅 이슈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5G 시장 선점과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

가로 주가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5G 가입자 증가에 따라 5G 통신장비업체의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윤창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닥 반등에 대비해 성장주에 주목해야 할 때라며 성장주 중 하나로 5G 관련주를 꼽았다. 통신 3사는 올해 8조 2000억원에서 최고 8조 5000억원까지 시설 투자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장비업체의 수혜를 예상했다. 그는 관련 톱픽(최선호주)으로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무선·유선 네트워크의 국내 및 해외 투자에 따른 동시 수혜가 기대되는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업체에 대해 프알을 꼽았다. /채윤정 기자 echo@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수 확대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기구 위원수가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다른 자격시험 위원수에 비해 위원수가 작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기구 위원수 확대와 공인회계사가 비자발적 주식취득시 직무가 제한되는 규정을 개정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기구 위원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을 추가해 4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을 7명으로 구성해 당연직 위원의 비중을 줄인다.

/나유리 기자 yul115@

중 상하이서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상하이에서 글로벌 경제교육 프로그램인 '미래에셋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업계 최대 어린이펀드인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G1호 펀드'와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펀드' 가입자 가운데 선발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7~11일, 14~17일까지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참석인원은 총 171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이번 31회까지 누적인원은 1만2000명이 넘는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각 판매사의 보수에서 15%씩 적립한 기금으로 진행되며, 참가비용은 무료다.

이 행사는 박물관, 동방명주 등 역사·문화 분야에서 모바일페이, 스마트 공유자전거 모바일 이용 등 경제 체험학습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3·1운동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 가입자 171명 선정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 참가자들이 중국 상하이 루신공원 내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청사를 비롯해 루신공원에 위치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경주 미래에셋자산운용 마케팅부 문 부회장은 "미래에셋은 어린이를 위

한 장기적립식펀드 문화 형성에 힘써왔고, 우리아이글로벌리더대장정을 통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경제·금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키움증권 팟빵서 아침시황 등 제공

키움증권은 리서치센터 서상영 투자전략팀장의 아침 시황 및 장마감 시황을 채널K, 팟빵 채널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상영 팀장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해외의 주요 이슈와 국내 투자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매일 새벽 3시부터 일과를 시작해 미국 증시와 해외 이슈들을 분석한 다음 '서상영의 아침시황'을 직접 제작해 오전 7시경 키움증권 팟빵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다. 오전 8시30분에는 채널K 생방송으로 미국 증시 마감상황을 정리해주고 국내증시 투자전략을 제시, 오후 3시15분에는 마감시황을 통해 당일의 시장 변수들을 짚고 내일 장 투자전략을 제시해 준다. /김유진 기자

하이투자증권 부산 구서지점 27일 자산관리 설명회

하이투자증권 부산 구서지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40분 객장에서 '2019 하반기 자산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권명재 하이투자증권 과장이 강사로 나서 '투자 변곡점에서 다시 짜는 재테크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수익화하는 방법, 코스피 하락장에서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노하우, 하락장에서도 하락하지 않는 강력한 기업 해부하기,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알파(+α) 수익률 얻기,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투자상품 소개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 장세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투자 꿀팁을 전한다. 설명회는 사전 예약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손영지 기자